



주빌리소식지

JUBILEE NEWS LETTER

February 2024, 제15호

교회 표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QT 나눔방을 잘 하기 위해



1. QT를 통해 교회 성장하는 것 아니다. QT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어 가는 여정이다.
2. 개인 QT는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만남이지만 QT방 모임은 하나님 말씀과 만난 내가 다른 하나님 말씀과 만난 성도들과 만나는 것이다.
3. 개인 QT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혼자서 QT를 지속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QT나눔의 유익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1) QT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2) 개인의 QT가 지나치게 주관적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
 - 3) 다른 사람의 QT를 들으면서 더욱 풍성한 나눔과 묵상이 가능하다.
 - 4) 서로의 신앙 생활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
4. 좋은 QT모임에는 모임을 잘 이끄는 지도자가 핵심이다.
5. QT 나눔방의 성공은 좋은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다. QT 리더들이 예수님 제자되는 것이다.
6. QT방은 상담모임도 아니고 교리세미나도 아니고 성경공부도 아니다. QT는 말씀과 삶의 정직한 나눔이어야 한다.
7. 문제는 정직한 말씀 나눔이 어렵다. QT방 나눔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말씀과 만남이 없이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하는 것이다.
8. 리더는 나눔을 돕는 사람이다. 정답을 주려고 한다거나 상담을 하려 하면 안 된다.
9. 가장 큰 유혹이 문제 많은 사람 QT 모임에 끌고 와서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욕심이다. 좋은 의도이지만 안 된다.
10. QT 오래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는 문제이다. 어떤 이야기라도 3분 이상 하지 않는다. 그날 성경 본문과 관계없는 교회 이야기 하지 않는다.
11.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 그런 것 관심 가지면 안된다. 리더 혼자라도 그 시간 지키고 한 사람이 와도 성실하게 말씀 나눔을 해야 한다.
12. 리더는 QT방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13. 모든 소그룹 모임, 특별히 QT 리더는 교회 목회 방침을 잘 따르는 사람이 해야 한다.
14. QT 율법주의 조심해야 한다. 먼저 QT 율법주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QT를 하지 않는 것을 불완전한 신앙생활로 여기는 경향이다.
15. 또한 QT 율법주의는 자기 자신이 QT에 얽매이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QT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16.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것이다.
17. 무엇보다 내 인생 담론이 예수님 이야기로 변화되어 가는 행복과 자유, 구원의 기쁨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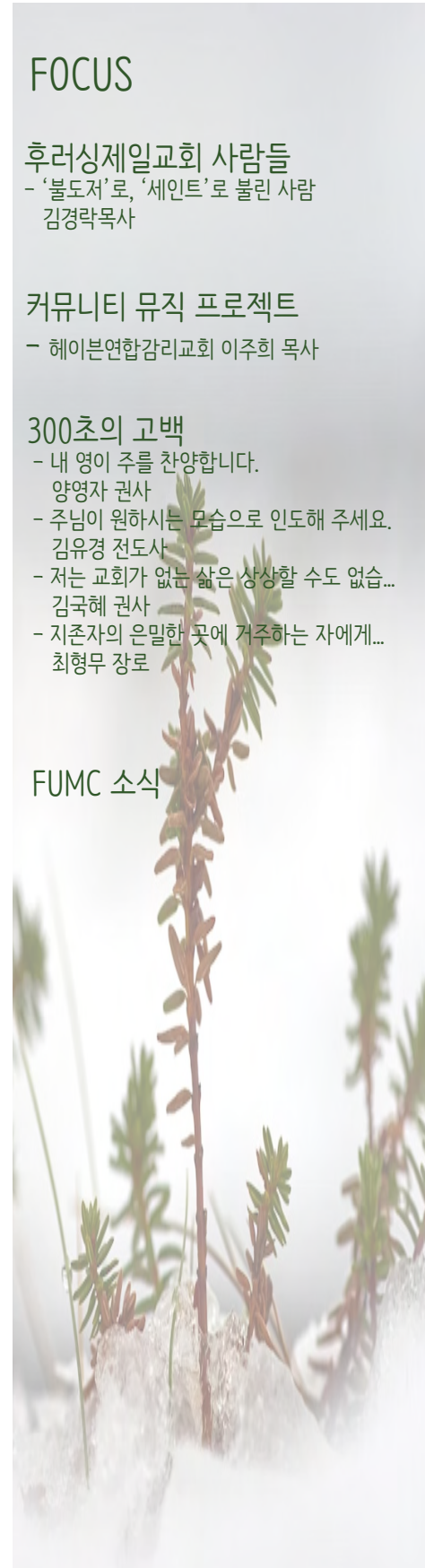
FOCUS

후러싱제일교회 사람들
- '불도저'로, '세인트'로 불린 사람
김경락목사

커뮤니티 뮤직 프로젝트
- 헤이븐연합감리교회 이주희 목사

300초의 고백
-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양영자 권사
-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세요.
김유경 전도사
- 저는 교회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습...
김국혜 권사
-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최형무 장로

FUMC 소식



후러싱제일교회 사람들

‘불도저’로, ‘세인트’로 불린 사람 - 노동자를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김경락 목사, 김순량 사모



김경락 목사님은 1937년 5월, 경상북도 안동군 구담동에서 6남매 중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집안이 기독교 가정은 아니었으나 9살부터 형을 따라 동네에 하나 뿐인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다. 주일은 아침 9시에 시작한 주일학교부터 장년예배가 끝날 때까지 온종일 교회에 있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였다. 김순량 사모님은, 김목사님을 고등학교 시절에 만나, 그의 권유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사모님 역시 가족 중에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인이 되었다. 현재 사모님 집안 쪽으로는 5분의 목회자가 배출되었다.

김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영민한 탓에 풍천국민학교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집안은 너무 어려웠다.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대신 아버지가 농사 지으신 무우니 호박 등을 장터에 나가 팔면서 집안 일을 도왔다. 하루는, 장이 서는 날이면 아버지와 술친구를 하시던 분이, 장터에 앉아 있는 어린 경락이를 보시고 아버지께 물으셨다. “애는 어디 중학교를 다니나?”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가지 못했다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분이 말씀하셨다. 우리 학교 입학시험에서 1등을 하면, 3년 내내 장학금을 주겠노라고. 그분은 신망중학교 국어교사셨던 심상락 선생님이었다. 김목사님은 입학때 뿐 아니라 중학교 내내 1등을 하였다.

당시 서울에 취직해 있던 2살 터울의 맏형이 공부를 해야 한다며 동생을 서울로 불렀다. 형님 덕분에 한영고등학교를 다녔다. 집 근처 왕십리감리교회에 출석하며 주일학교 교사도 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교회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가라고 추천해 주셨다.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던 감리교신학대학에 진학하여 본격적인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신학대학을 졸업 후, 처음으로 부임한 곳은 경기도 김포군에 있던 고양감리교회였다. 이때 이미 7년간 연애했던 김순량 사모님과 결혼도 하였고, 이듬해에는 첫 아들 광수도 얻었다. 주로 개성에서 온 피난민과 강화도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에서 3년간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였다. 처음에 전도사로 부임할 당시 25명이던 교인은 그 사이에 125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당시 한국에는 노동법이 없었고, 노동조합도 없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며 장시간 노동을 하였고, 그나마도 봉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밀려서 받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목사님이 속해 있던 감리교 서울연회는 목사님을 ‘도시산업선교회’로 특별 파송하였다. ‘도시산업선교회’는 원래 한국의 개신교가 노동자를 ‘선교’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였다. 1950년대 중반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진 ‘산업전도’ 활동에서 시작한 것으로, 애초 목적은 당시 급속히 증가하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에 눈을 뜬 목회자들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 도시빈민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목사님은 영등포에 있던 도시산업선교회를 더욱 확장시켜 총무직을 맡으면서 이 모임을 연합회로 발전시켰다. 감리교 뿐 아니라 장로교 목사들과도 연합하여, 교파를 넘어선 단체로서, 서독의 세계적인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부터 후원도 받고 구로공단 뿐 아니라 대전, 충주, 마산 등 전국적인 활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목사님은 이 당시 일로 기억난다며 일화를 하나 소개하였다. 마산방직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이 동대문에 있는 한 장로교회의 장로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근로자들이 폭행도 심하게 당하곤 하였다. 김진수라고 하는 청년도 폭행을 당하다가 불행히도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이 청년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살던 노동자였다. 세브란스 영안실에 차가운 죽음으로 누운 이 청년의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목사님은 교섭을 시작하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학생들이 몰려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함께 시위도 하였다. 교섭은 오래 걸렸다. 목사님은 사장의 사촌되는 사람이든 회사 상무든 누구에게든, 장로가 이렇게 노동자를 어렵게 해도 되는가, 이런 폭력을 써도 되는가 항의하고 또 항의하였다. 결국 당시 4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받아 그 어머니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목사님의 별명은 '불도저'. 그냥 얻은 별명은 아니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피난민인 주민들이 땅을 불허받아 개간을 잘 하였다. 그런데 당시 농림부차관이 예수교장로회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이었다. 이 차관의 형된 사람이 이 개간지를 빼앗아 논으로 만들어 착복했다. 또 난민에게 주어진 미국의 구호품도 중간에서 빼앗아가기도 하였다.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 차관을 만나 담판을 짓고, 빼앗긴 땅과 구호품을 되찾아오니까 교인도 더 늘어갔다. 이런 목회를 하다보니, 1973년 12월에는 대한민국 제1회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영예로운 순간도 잠시, 바로 이듬해 김경락 목사님 일생의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다.



◇ 대한민국 제1회 인권상 수상 장면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국회의 동의 없이도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도시산업선교

1974년 1월, 긴급 조치1호로 구속이 된 것이다. '긴급 조치'란 1972년 개헌된 유신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회 김경락 목사 등 기독교 성직자들이 긴급조치 철회와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기도회 개최를 결의하고, '개헌논의 허용하라, 민주질서 회복하라'는 현수막과 선언문을 작성해 1974년 1월 17일, 종로구 기독교회관 소재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개헌 청원 서명록에 서명, 언론사에 선언문을 배포하였다.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김경락 목사 등 11명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목사님은 구속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당시 백만인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연대 옆에 살던 감리교의 평신도 선교사 월터 더스트의 집으로 갔다. 우리가 하는 일을 미국을 위시해서 세계에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하러 간 것이다. 그 때 더스트 선교사가 마침 남산 호텔에 미국의 장관이 와 있으니 가보자고 하였다. 선언문을 그 장관에게 전해주고 (이 내용은 이후 국내 언론 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 미국 등지에서 보도가 되었다) 영등포의 도시산업선교회 사무실로 가니, 중앙정보부와 경찰서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갔다. 큰 아들 광수는 6살, 작은 아들 진수는 3살이었다. 여기서부터는 잠시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

뒤늦게 소식을 전해들은 사모님은 남편이 어디에 수감되었는지 사방팔방으로 찾았지만, 근 한 달동안 어디 계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구속자의 수는 수백 명에 달했다. 한강이 얼어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추운 겨울이었다. 당시 결핵을 앓던 김목사님이었기에, 이 추위에 죽어서 나오거나 살아나와도 온전치는 못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수소문 끝에 중앙정보부 직원이던 어느 목사님의 처남 덕에 김경락 목사님이 서대문서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접했고, 가족 대표 1명만 면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각각 두 분의 재회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목사님은 그 추운 겨울에 양말도 없이 맨발로 서 있던 사모님이 떠오른다고 했다. 한편, 사모님은 감옥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면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저쪽에서 빙그레 웃으며 맞아주셨다고,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살을 꼬집어 보셨다고 한다. "사람들이 닭털 침낭을 몇개나 넣어주었다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도 전달이 되지 않았어"라는 목사님 말에, 그런데도 그 추위에 어찌 그리 건강하고 온화해 보였는지 아직도 의아

하시다는 사모님. 그 때 목사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2:24 말씀을 떠올리셨다고 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때부터 사모님은 모든 성경구절이 다 진실이고, 일점일획도 틀린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 믿게 되었다고 한다.



◇ 연애 시절, 덕수궁에서
를 준비했을 뿐인데, 국내외 기자들, 경찰들, 중앙정보부
요원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당이 가득할 정
도가 되었다. 함석헌 선생님이나 이희호 여사 같은 분들도
매주 참석해 주었다.

목사님은 15년 구형을 받았으나, 정확히 1년 1개월 1주일
을 감옥에서 지내고 풀려났다. 출소 후 목사님은 바로 다
시 도시산업선교회로 출근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공항중
양감리교회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 주일
마다 가서 설교로 교회를 도와주다가 담임목사로 시무하
게 되었다. 이 교회는 교인이 30여명인 아주 작은 교회였
는데, 나중에는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 2층을 올려야 할
정도로 부흥하였다. 후에 화곡동에서 힘든 목회를 하던 목
사님이 도움을 요청해와 그 목사님과 담임직을 교환하여
화곡동 교회에 가서 역시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를 부흥시
켰다. 그러나 교인이 설교를 녹음해서 중앙정보부에 보고
를 하고, 설교를 못하게 막기도 하는 일이 생겼다. 청년수
를 늘려놓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 이번에는 봉천동에
있는 충성교회에 부임을 하였다. 그곳에서도 교회를 부흥
시켜 건물을 늘려야 할 정도로 교인수가 늘어났지만, 교인
중 공무원이었던 분들이 목사님의 목회를 방해하여 사역
하기가 쉽지 않았다.

면회를 하고 나서 사모님은,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도 두
려울 것이 없다’, ‘지금은 오
직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
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구속자 부인 몇이 모여 기도
장소를 구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종로 5가 기독교
회관 대강당에서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저 구속자 가족
들이 모여 하는 작은 기도회

이 와중에 그리도 원하는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렸다. 하나
님의 은혜였다. 도시산업선교회 일을 할 때에도 이미 미국
의 하버드, 듀크, 에모리대학 등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
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을 떠날 수가 없었
었다. 그런데 이제 1981년, 켄터키신학교에서 장학금을
줄테니 공부하러 오라는 입학 허가를 보내주었다. 목사님
과 가족이 미국 입국 비자를 얻는 과정은 그야말로 하나님
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목사님은 미국에
와서 1982년 가을 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각각 16살,
13살이 된 두 아들과 사모님은 우여곡절 끝에 1983년 2
월, 미국에 도착하였다.

이후 볼티모어의 타우슨연합감리교회(TOWSON UMC)
에서 한인목회도 하고,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도 섬기다
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미국교회를 맡아 10년간 목회
를 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사모님은 사회사업학 공부
를 하고, 목사님은 피츠버그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
를 받았다.

이후 치트레이크연합감리교회(CHEAT LAKE UMC)로 옮
겨 목회를 할 때 일이다. 어느 날, 교회 근처 이웃집에 사
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인가 하여 가
보니, 그 이웃이 3주째 딸꾹질을 멈추지 않아 이 사람이
곧 죽을 것이라 예상한 친지들이 많이 모인 것이었다. 집
에 와서 침통을 가져와 양해를 구하고 기도와 함께 침을
놓아주었다. 놀랍게도 그의 딸꾹질이 멈추었다. 그의 형이
되는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하였
다. 그 형되는 사람은 간증을 하며 목사님 부부를 세인트
(성자)라고 불렀다. 이후 근방에 세인트라고 소문이 나고
가는 곳마다 세인트 대접을 받았다. 곧 문을 닫을 듯이 어
려웠던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 이전에는 동양인들과 놀
지도 못하게 하던 동네였는데 이제는 동양인 목사가 하는
교회에 교인들이 몰려들었다. 백인교회들을 목회하는 동
안, 목사님 가정은 교인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 지금
도 돌아보면 감사할 뿐이다.

그러나 부름받아 어디든 가야 하는 목회자이기에, 다시 또
부르클린 남산교회에 파송을 받게 되어 정든 교인들을 뒤
로 한 채 뉴욕으로 향했다. 이후 자마이카 교회로도 파송
을 받았다. 이 교회 역시 예배당 가득 교인들로 가득 찰 정
도로 부흥하였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하는
가 묻는 동료 목회자들이 있었다. 그에 대한 목사님의 답

이주희 목사 (Haven UMC)

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영어도 서툰데 가는 곳마다 부흥할 수 있어 그저 감사할 뿐이라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도 굳이 비결을 말하라면, ‘심방’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목회하는 교회마다 부임하면 매일매일 교인 가정을 심방하였다. 처음엔 15분 방문도 안 된다 하던 교인 집에 나중에는 2 시간이나 심방하는 경우도 생길 정도로 열심히 심방을 하였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던 ‘불도저’, 교회 목회를 위해서는 ‘세인트’의 모습이 더해졌다.

이제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은퇴 목회자의 삶을 이어가는 김경락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을 김정호 담임목사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와 투철한 사회정의감을 제1순위로 꼽으신다. 그리고 사회 봉사에 앞장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인들이 자랑스럽고, 청소년 교육에 주력하는 교회, 세계 약소국에 대한 선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라는 점도 단연 돋보인다고도 하신다. 이제 한인회중 50주년을 바라보며 더 바랄 것이 있다면, 청소년 전도 캠페인을 더 벌였으면 하는 것과, 뉴욕 우리 교회 주변의 선교에 더 힘을 쓸 것, 특히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한인들에게 더 힘이 되어줄 것을 강조하신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더 성숙한 믿음을 갖고 50살된 성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목사님의 바람이다.



◇ 금혼식. 왼쪽부터 큰 아들 광수 가족과 작은 아들 진수 부부. 광수는 판사, 진수는 법무사, 작은 며느리는 변호사로 모두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헤이븐 교회 이주희 목사입니다. 후러싱제일교회 희망 나눔 선교 프로젝트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헤이븐교회는 로드아일랜드, 이스트 프라비던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143년 역사를 담고 있는 교회이지만, 지금은 작은 규모의 성도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사역 속,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답니다.

제가 2019년 이 교회로 파송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과 지역사회와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지역 상황을 보니, 주변 지역들에 비해 빈곤 수준도 높고, 중산층 월급도 평균보다 낮은 곳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소외되고, 혜택을 덜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무료 음악학교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바이올린, 피아노 레슨으로 시작했고, 1년이 지나가며 점점 발전이 되어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앙상블을 가르치는 Community Music Project 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2020년도에 6명의 학생들과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24년 현재 46명의 학생들과 13명의 봉사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 순위를 두고, 무료 악기 대여, 무료 레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음악 교육을 넘어서, 드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돌보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이민자들(케이프 베르디, 러시아, 멕시코, 중국, 한국)입니다. 5살 어린이부터 89세 어른들까지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문화인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도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희 교회 무료 음악 학교 비전입니다.

봄학기 마무리를 봄 자선 음악회로 하고, 여름 시즌에는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를 위한 음악캠프를 진행하며, 가을학기를 크리스마스 자선 음악회로 마무리 합니다.

저희 교회 자원으로 운영하기엔 어려운 학생수 임에도, 4년째 발전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봉사자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대부분이 음악에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는 브라

운 대학 의대생, 음대생들입니다. 사실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봉사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참 의미 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봉사자 선생님들의 사랑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고급반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받은 사랑을 초급반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 사랑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학기 열심히 음악을 배운 학생들은, 그 저 배우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 자선 음악회를 함께 참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재능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자선 음악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 지진피해 입은 터키, 시리아, 지역 사회 연합, 과테말라 무료 백내장 수술을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비전이, Creating a Loving Community 이기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봉사자 선생님들을 사랑으로 알뜰 살뜰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동안 아침과 점심을 후하게 대접하고, 교통편을 제공하며, 매 학기 제 집으로 초대해 밥도 같이 먹고, 그들의 콘서트 때마다 찾아가 응원 하지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다 보니, 선생님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의 장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되레 제게 감사 표현을 합니다. 어느 날은 대학교 졸업하고 떠난 한 선생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우리 Second Mother 라고 해.” 뜻밖의 일이었기에 마음이 몽클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했고, 우리 봉사자 선생님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남았다는 생각에 더 없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이 다했지요. 그러다 보니 저희 음악학교에 감사가 넘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널싱홈에서 힐링 콘서트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넓은 다닝 룸에 한 시각장애인 분께서 먼저 오셔서 저희 팀을 환한 웃음으로 반겨 주셨습니다. 그분은 연주 내내 몸을 이리 저리 흔들리며 기쁨을 표현하시고, 때론 음악에 맞춰 지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독 눈에 띄었던 분도 계셨는데요. 당뇨병으로 다리 양쪽이 절단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휠체어에 조용해 앉아 힐링 콘서트 내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주 후에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붉게 달아 오른 그분의 얼굴에 평온함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한 사춘기 아이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손가락에 장애를 가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성장하면서, 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이 오면서 한 여름에도 장애를 가리기 위해 긴 팔 옷을 입고, 스스로 친구들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던 아이입니다. 코로나 상황 후 점점 더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던 아이가, 엄마의 권유로 힐링 콘서트를 위한 여름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이 본인 연주한 음악을 통해 행복해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본 이 아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자신의 존재가 그리고 갖고 있는 재능이 연약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좋은 연주로 보답하고 싶다면서 집에서 매일매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생기 넘친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지요. 저희 교회 음악 사역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힐링의 순간을 선사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커뮤니티 뮤직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기 자원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성장하고,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악기를 구입하고, 사이즈를 변경해야 하는데, 재정 부족으로 인해 제때 악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사용하지 않는 악기가 있으시다면, 저희 음악학교에 기부해 주시면 감사히 받고,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봉사자 선생님들과 음악학교를 이끌어 가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봉사자이기에 규칙적으로 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악기별로 상주 선생님 한 분 씩은 파트타임이라도 고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각



300초의 고백

내 영이 언제나 주를 찬양합니다.

♪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지금 이자리에 없습니다. 걸음마다 자국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재난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는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제가 낳을 때 큰 오빠는 대학교 일학년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걸 좋아하지 않던 엄마는 나를 책상 밑으로 밀어 두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고 자랐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무섭게 지도하셨던 부모님은 교회 하나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올해 70년이 되었습니다. 8월 15일 창립일에 그 교회를 20년 목회하신 목사님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기억에 어머니는 집에서 잠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교회로 가시고, 추울 때도 밉크 담요를 깔고 교회 바닥에 엎드려 기도드렸습니다. 새벽 중 치시고 차인 벨을 울리시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엄마 나 아파?” 하면 “아프나, 이리 오너라. 기도 하자, 회개해라” 그러셨는데 기도가 끝나면 열이 내리고 깨끗이 회복되곤 했습니다.

천국 가실 때는 “얘들아 나 천국 간다” 하시며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축복해 주시고 너무 기쁘다 하시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먼저 가신 아버지랑 웃음이 똑같았습니다.

양영자 권사



영원할 것만 같은 건강, 젊음, 물질이었지만, 미국 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 목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무엇이었는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머리 카락이 완전히 빠졌을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창피해요. 아가들아 원망 하지 마라, 하나님 원망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님들, 목사님도 파이팅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음정 박자 회복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괜찮다지만 나는 왠지 안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니나 잘해라, 크게 해라.”

♪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우리는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공공 앓다가도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면 너무 기뻐합니다.

♪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웠노라’

♪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높이며, 할렐루 할렐루 두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해요’

내 영이 언제나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세요.

김유경 전도사



생전 부모님께서 저를 보시며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게 생겼어…”

이 만만치 않았던 저의 못난 모습으로 겪었던 몇 가지의 경험담을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정호 목사님께서 2015년에 우리 교회에 부임 오셨을 때 새로운 목사님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과 함께 저 역시 열심히 사역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스텝미팅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툭툭 말씀하시는 것 때문인지 목사님의 스타일이 처음부터 안 맞았습니다. 제가 섬겼던 어떤 목사님들과 다르게 특이하다, 희한하다라고 느꼈습니다. 회의 중 말씀하실 때 저는 상처를 받았고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가 몰려 왔어요. “괜히 다시 돌아왔나”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갈등을 주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확신했는데, 전 그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안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나 미팅시간은 늘 마음의 전쟁이었요. 기분이 나쁘다 보니 목사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도 오만불손 했습니다. 목사님 질문에 답은 “몰라요, 안해요, 못해요, 할줄 몰라요, 할 수 없어요.” 였고, 다리 꼬고 앉고, 팔짱 끼고, 목사님 얼굴 안 쳐다 보려고 먼산 보듯이 천장만 바라보고, 눈썹은 올라가고, 주먹은 불끈 쥐고, 아랫 입술은 깨물고, 매번 15분 20분 늦게 도착하고, 못된 짓 많이 했네요.

생전에 어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 너같이 강한 사람 처음 봤어. 이 세상에 너 같이 센 사람 없을거야. 근데, 너 그것 죽여야 된다.” 그 말씀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것에 자존심 세우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다혈질이고 성격 급하고 인내심 없는 인간인데 그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국 몇 달 동안 쌓여 있었던 제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날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조퇴하고, 씩씩 거리며 공원에 갔습니다.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짓고 오늘 당장 사직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제가 너무 분한 마음에 사직서와 같이 목사님께 이메일로 지금까지 왜 제가 불쾌했고 힘들었는지 장문의 편지를 쓰고 마지막 문장에 “목사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쓰려고 맘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시고 엄마가 “무슨 일 있었니?” 하시는데 저는 대꾸도 안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목사님께 이메일을 썼습니다. 결론의 문장 “목사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쓰려는 찰라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야! 너가 잘난 것 같지. 아무 잘 못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너는 아직도 멀었어. 너 자신을 돌아봐! 너 고집 사나운 것, 너 자존심, 너 못된 성격, 너만 생각하는 너 자신, 남 탓 하지말고.. 그래서 니가 발전이 없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야. 이 멍청한 인간아. 너의 모습을 한번 잘 들여다봐” 그러시고 문을 확 닫으시고 나가셨어요. “쿵!” 그 문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 때가 제 wake up call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경아 너 정신 차려”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말이 저에게 하는 소리였던거예요 “유경! 너야말로 인생 그렇게 살지마.”

그리고 그 문 닫히는 소리가 오래 전에 제 마음 문을 하나님 앞에서 닫는 소리였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속으로 들어오고 싶으셨지만 들어오실 수 없었습니다. 수년 간 그렇게 문을 닫은 채로 생활하였습니다. 그 날 잠을 못 잤어요. 엄마 말씀이 메아리치는 거예요. 제가 착각 속에 살았던 거였어요. 나는 항상 의인이고, 피해자였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죄인이고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다 가해자였습니다.

다시 제 깊은 마음 속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으며, 기도하며, 제 마음속에 버려야 하는 수 많은 것들,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버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수년 동안 변화도 발전도 없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항상 머물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물이 흘러서 강과 바다로 가야 하는 데 물이 한 곳에서 방향을 잃고 계속 머물러 있었으니 썩는 거잖아요.

그렇게 혼자 썩어가고 제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남만 탓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아프게 한 못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의 충돌은 결국 제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태도와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생각과 마음을 바꿔 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자존심은 세고 강했지만 슬프고 안타깝게도 자존감은 없었어요. 완전히 제로, 그런 일그러지고 뒤틀려 있는 내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또 스스로가 쌓아가고 있었던 마음에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하는 기도가 ‘사역’ 잘 하게 해달라고, 잘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밤을 새고, 남들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과 열정을 쏟아 붓는 그 일과 사역이 저의 방패이자 무기였습니다. 사역 열심히 하면 내 아픔, 치유되지 않은 상처, 약함, 내 모자람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날 함부로 하지 않을것이라고도 착각했었어요. Defense Mechanism - 방어기제가 엄청 강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아닌 못난 자신을 감추기 위하여 보이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 다녔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몇 년 동안을.

또 다른 문제는 캄캄한 무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마음의 무덤 속에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방관하고 방치를 했었죠. 그리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제 마음의 벽을 주님의 도움으로 허물기 시작했고 몇 년 전에 “광” 하고 닫았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문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 주님의 인도 하심으로 마음의 무덤 그 캄캄한 곳에서 나와 드디어 오래간만에 보는 빛과 주님 안의 자유함,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 안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마음의 벽을 허물고 무덤에서 나오고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의 갈망함으로 채워지면서 목사님과 여러가지 얘기를 했던 어느 날 제 미래 계획과 사역에 대하여 얘기를 하다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목사님께서 “김 전도사 다음 계획은 목사 안수과정이 아닐까? 그럼 한번 도전해 봐요” 목사님의 격려와 조언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생각지도 않았던 목사 안수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말하는 성화의 과정을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과의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통하여 좌충우돌 하면서 저를 연단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끔 “김유경 전도사 요새 좀 착해졌네” 이러십니다. 그건 제가 착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주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생각과 자세와 태도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셔서 바뀌어지니 제 마음 중심에 제가 아닌 제 자존심도 아닌 예수님이 계시기에 제가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도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물같은 존재인 제가 목사 안수과정이라는 강과 바다로 나가게끔 훈련시켜 주시기 위하여 담임목사님을 통하여 여러가지 신앙/인생 경험을 겪게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사역자와의 만남, 대화,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닫혔던 제 마음을 활짝 열게 해 주셔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목사님이 저의 왼수같은 존재 였지만 지금은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소원은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 이쁨 받는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욥기 23: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저는 교회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김국혜 권사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북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교사이셨어요. 어머니가 수업 때문에 출근을 하게 되면 외가댁에 가서 외조부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때 외할 아버지는 늘 성경을 읽고 계셨죠. 내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외할아버지가 전도사이셨대요. 외할머니는 아주 고운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신의주에 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신의주 제이장로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할머니하고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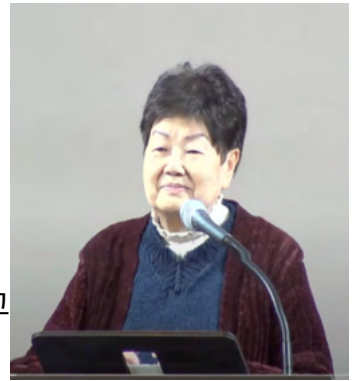
첫 번째 이민, 북에서 남으로

외삼촌이 철도국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외삼촌이 아버지를 불러서 얘기했답니다. “매형은 이북에서 못 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세요. 누님과 가족들은 제가 챙겨서 뒤 따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먼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7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더니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등에 매는 가방도 하나 있었는데 가방도 싸고, 세 살 터울 동생도 함께 데리고 간다고 짐을 챙기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디 간다고 하니 뭘 일인 줄도 모르고 마냥 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신의주를 출발해서 남쪽을 향해 길을 떠났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와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된 것이 아니라 무작정 남편을 찾아 어린 남매를 데리고 남쪽으로 길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개성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낮에는 적발될까 두려워서 한밤중에만 몰래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제 또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은밀히 많은 사람들이 38선을 넘어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에 안내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셨던 할아버지는 지게에 제 동생을 싣고 짐도 싣고 앞서 걸었고 어머니는 머리에 짐을 이고 한손으로는 제 손을 붙잡고 캄캄한 밤길을 걸었습니다.

개성에 도착해보니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 큰 술에 국을 끓이고 밥을 지어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개성을 거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 도착한 후 영락교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아

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까 그 교회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미 월남해서 영락교회를 시무하고 계셨습니다.



기대했던 아버지는 만나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이북에서 먼저 내려 온 아버지 친구 분을 영락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친구 분에게 사정 얘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내려 간 남편을 따라 어린 남매를 데리고 와서 찾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친구 분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어디 가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대전인지 대구인지 확실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암튼 ‘대’자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대전인지 대구인지 분명치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같은 재회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대전과 대구 두 곳을 다 가보기로 하셨습니다. 경부선 기차를 타면 대전을 들르고 대구로 가니까 대전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대전에 내렸더니 시장 통에 잡화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숯도 팔고, 두부도 물에 담가 놓고 팔고, 콩나물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골목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게는 그 자리에서 짐을 지키고 꼼짝 말고 서 있으라고 하셨죠. 시장통이라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 지나가는 것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저희 아버지가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그 시장통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아버지께 뛰어가 “아버지!” 외치며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도 깜짝 놀랐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신의주에 있어야 할 딸이 갑자기 뛰어와서 다리를 끌어안으니! 저는 얼른 또 화장실로 뛰어가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기 있어요” 소리쳤

습니다. 어머니는 뛰쳐 나가서 아버지를 만났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전에서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우리 가족은 대전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대전에 있는 제일장로교회를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출석 명단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장통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대전에서 6.25를 겪었고 그 후에 제 아버지는 안수집사를 거쳐 장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은 교회와 붙어 있습니다. 집 뒷문을 열면 바로 교회였죠. 찬양대원들은 저희 집에 와서 연습을 했고 성경학교 같은 것이 열리면 교사들을 집에서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희 부엌에 오셔서 왁자지껄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라고 하셨어요. 고등부 임원도 하고 성경학교 교사도 하고 어려서부터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이민, 미국으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남편이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왔죠. 1976년에 취업 이민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조폐공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아버지 만나러 교회 먼저 찾았던 것처럼, 저도 어디 가든지 교회를 먼저 찾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에 퀸즈한인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아이들 친구 부모가 퀸즈한인교회 장로여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았었고 저도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출석만 했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출석하던 후러싱제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승훈 목사님 계실 때죠. 동생은 성가대도 하고 여러가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함께 등록을 하고 구역예배, 선교회 모임 등에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좋았다기 보다는 어디가나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평소의 소신이 영향을 미친 것도 있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하늘 나라에 갔습니다. 담임목사님과 사모님이 장지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 일정을 잘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후부터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주로 독립기념일 연휴에 열렸던 2박 3일 수양회에도 빠지지 않았고,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했고, 그 밖에 선교회와 제자반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한 때는 수요일 새벽에 제자반 공부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자반에서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형식 등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자반을 통해서 기도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기도가 참 힘들었습니다. 기도의 순서와 들어가야 할 내용도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는 새벽예배도 평신도가 대표기도를 했습니다. 대표기도 하는 분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선 채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제자반 기도 공부하면서 큰 소리로 대표기도 하는 연습도 했죠. 당시에는 여성분들은 대표기도를 맡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만 대표기도를 했어요. 언제부턴가 여성 성도님들도 대표기도를 맡았고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뉘었던 제자반 과제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주일에 모르는 교인 5명 이상 인사하기였습니다. 모르는 교인들 서로 알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앙 생활에 필요한 것들 숙제로 내 줬는데 좋았습니다.

교회가 친정이고 안식처입니다.

저는 교회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제 친정이고 안식처입니다.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살았으니 제게는 이런 생각이 당연합니다. 어려서는 부모님 권유로 다녔지만 나중에 성장해서는 제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전화도 자주합니다. 심지어 차가 시동이 안 걸릴 때도 교회에 전화했더니 부목사님 오셔서 도와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



오래 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쓴 번역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본인이 일상 생활을 하며 크고 작은 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모두 적어서 그 수를 헤아려 보았는데, 수만 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 수만 번 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 크고 작은 일에 -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수만 번 이상으로 - 우리가 모르는 사 이에도 -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기 박용기 장로님 계십니다만, 박 장로님께서 한국의 기독교실업인회를 창립하셨었죠. 이곳 뉴욕에서도 CBMC 라고 해서 여러 믿는 직장인과 실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 모임을 가지곤 했었는데, 이같은 과정에서 한 가지 배우고 느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까 직장이나 일터에 함께 하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일의 스트레스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깜빡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후러싱 메인 스트리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을 때, 어느날 한 부부가 찾아 오셨습니다. 연변에서 오셔서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작은 사업체를 꾸려 나가며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시는 아주 성실하고 착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아주 많이 일어 나고 있는 아이덴티티 절도범에게 신분 도용 범죄를 당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범인이 10여개 은행에서 모든 크레딧을 다 빼가고 10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일으켜 놓고 크레딧을 다 망가뜨려 놓아서,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며 눈물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우시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Identity Theft 라고 하는 신분 도용 절도는 미국에서 매년

최형무 장로

수백만 건이 일어 나고 있고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당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그냥 신고를 받아 놓는 정도이지 사실상의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은행들도 이런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보통 신고를 받으면 알아 보겠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되지 않아 텍사스 경찰의 수사관으로부터 범인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을 대리해서 여러 은행에 연락했었는데, 그 중 한 은행의 담당자가 제게 콜백 전화를 해서 - 추가 자료를 빨리 보내라고 독촉을 하다시피 하며 - 보통 하는 것 이상으로 끝까지 사건을 추적해서, 이분들의 이름과 소셜번호로 론을 받은 범인을 찾아내 텍사스 경찰에 연락한 것입니다. 이 분들은 텍사스 현지 검찰에서 제공한 항공기 티켓으로 재판에 가서 증언하고 범인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매년 수백만 건 이상 미국에서 일어 나는 신분 도용 사건에서 범인이 잡히는 것은 피해자가 유명한 사여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특별 수사를 한다면 모를까 보통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 한 법률 저널에는 신분 도용의 피해자가 변호사인데도 사건을 수년 간 해결치 못하고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는 사건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게 사건을 의뢰했던 그 분들의 믿음과 성실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직접 개입하시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한 법률 문제이기도 한 과거의 한 사건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 우리 교회에서 루즈벨트 애버뉴 건너편에 있는 비전센터를 건축할 때, 그 건물 앞에 큰 가로수 나무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가요? 교회가 미리 사 놓아 주차장으로 쓰던 빈터에 비전센터로 쓰는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 앞 거리에 가로수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가로수 나무들은 뉴욕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뉴욕시 정부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사실 그 때 어느분이 - 누군지는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만 - 제가 변호사니까 제게 그 나무를 잘라도 되느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의 나무는 뉴욕시 소관이므로 허가 없이 나무를 자르면 절대로 안된다고 이야기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나무가 잘렸고, 그 후 뉴욕시로부터 약

10만 달러의 벌금 통지서가 교회로 날라 왔습니다. 가로수 하나가 무단 제거되면 뉴욕시 공원국은 이 나무가 당시 거기 있을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들어간 제반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해서 거기에 패널티를 덧 붙여서 티켓을 끊고 벌금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를 자른 벌금이 10만 달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벌금 노티스를 받고 교회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뉴욕시에 연락해서 벌금을 없애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시가 파킹 티켓 50달러 짜리 하나도 이유 없이는 없애 주지 않는데, 10만 달러 짜리 티켓을 없애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교회에 나온 벌금을 없애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에 전화로 연락해서 메세지를 남기고 늦은 밤에 이메일을 보내고 오버 나이트 속달 우송으로 서류를 보낼 때마다, 항상 미리 잠시 기도하며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나무를 자를 당시 수목사가 입회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렌스 박 권사님이 나무를 자를 당시 수목사를 불러 나무의 안팎 사진을 찍어 놓았던 것입니다. 박 권사님이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수목사가 미국 분이었는데 이 분야에 경험과 이력이 화려한 훌륭한 분이었고, 제가 연락했더니 진술서를 너무 잘 써 주셨습니다. 잘린 나무 안 쪽이 텅빈 사진을 첨부하고, 만약 우리가 안 잘랐으면 나무가 언제라도 쓸어질 수 있는 상태였고, 나무가 쓸어져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나무를 자름으로서 오히려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라고 말하며 벌금을 없애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 한 번 없이 뉴욕시는 교회에 부과했던 10만달러 벌금을 없애 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이 벌금을 없애 달라고 여러 분들이 기도를 해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팀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ATM 처럼 꺼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더더욱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비서처럼 도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만만히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고, 시편 말씀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은혜받게 하시고, 때론 본인만 아는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교인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직접 손으로 쓰신 성경이 봉헌되어 있죠. 이 성경이 봉헌되기 전 여러 교인들이 참여할 때 사실 저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당시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도 했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거의 마감 시간이 되기 직전 당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최찬영 목사님이 제게 참여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지금 기억하기로 두 번에 걸쳐 권유하시어서, 아무래도 목사님 말씀을 따라야 할 것 같았습니다. 교인들끼리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필사하기로 했는데, 그 때 이미 많은 분들이 성경의 대부분을 선택했던 상황이라, 제가 싸인 업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몇개 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6장을 아직까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해서 성경 필사에 참여,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들이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마태복음 산상 수훈의 말씀은 바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서 머리맡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읽었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간증할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계속 허덕이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앙인은 삶을 통해 간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감히 조그마한 간증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바쁜 가운데에서도 항상 시간을 내시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FUMC 소식

1월 소그룹 리더십 교육

지난 1월 14일(주일) 소그룹 리더 교육이 오후 12시 45분에 교육관 3층 예비실에서 열렸습니다. 김정호 담임목사는 교구장, 속장, 부속장, QT 리더 등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 소그룹 리더들이 저지를 수 있는 10가지 실수에 대해 언급한 다음 “우리는 이렇게 사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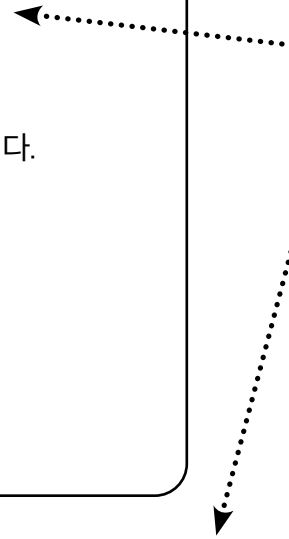
우리는 이렇게 사역합니다.

1. 말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롬14:23)
2. 부서나 기관의 일을 할 때 일 중심보다 은혜 끼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행2:46-47)
3. 부서나 기관의 일을 할 때 관계(사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눅17:2)
4. 아는 척, 하는 척 하지 않고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벧전5:3)
5.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며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전5:2)
6.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고,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다.(빌4:4)
7.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함께 일하는 다른 교인들을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8.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 줍니다.
9. 주님의 일을 내 일보다 먼저 합니다.
10. 의견을 내세울 때는 주의 몸 된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합니다.
11. 계획은 크게,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12. 주의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욕 먹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영광으로 여깁니다.
13.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충성하며 참고 인내합니다.(딤후4:7-8)



JANUAR

SUN	MON	TUE	WED
31	1	2	3
7	8	9	10
14	15	16	17
21	22	23	24
28	29	30	31



2024년 신규 임원 신년 하례회

신구임원 신년하례회가 1월 21일 주일 오후 4시에 친교실에서 열렸습니다. 새로 임원이 되신 분들을 환영하고 금년 행사 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John Yang 전도사가 영어권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본관 지붕 쏠라패널 설치하는 문제와 설날 행복 대잔치에 관한 의논도 있었습니다.



EM and Youth Prayer Rally - January 6 and 13

EM and Youth members gathered together to start the new year. Dr. HongToo Leow, who moved to Wilmore, KY and prayed for revival, shared his experience of the Asbury Revival on the first night of the prayer rally. He shared that repentance of sin is the beginning, content, and the outcome of revival. During the second prayer rally, those who attended prayed specifically for revival for our church and for new Youth and EM vision.

EM과 중고등부 기도 집회 - 1월 6일과 13일

EM과 Youth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캔터키 주 윌모어로 이주한 홍투 루 교수는 기도 집회 첫날 밤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애즈베리 부흥에 대한 경험을 털어냈습니다. 죄를 참회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내용이며, 결과라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집회 때 참석한 이들은 우리 교회와 새로운 Youth와 EM 비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부활을 기도했습니다.



Y 2024

	THU	FRI	SAT
	4	5	6
	11	12	13
	18	19	20
	25	26	27
	1	2	3

Youth Ice Skating Trip - January 27

The youth students were able to enjoy the goodness of winter at a recent ice skating event. Both beginners and experienced students were able to enjoy each other's company and grow in fellowship.

중고등부 아이스 스케이팅 - 1월 27일

젊은 학생들은 아이스 스케이팅을 다녀왔습니다. 초보자와 경험이 있는 학생들 모두 스케이팅을 즐기며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ANNOUNCEMENT

1. 재의 수요일 예배 Ash Wednesday Service
2월 14일(수) 오후 8시에 재의 수요일 예배를 온 가족 한,영 합동예배로 드립니다.
2. 2024년 사순절 부활절 예배 안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월 25일(월)-30일(토) 6am
부활주일 예배: 3월 31일(주일) 1~5부 예배
(세례 및 입교식 3부)
3. 부활주일 세례, 입교자 교육 안내
일시: 3월 10일, 17일, 24일 3부 예배 후
(3주간, 장소: 컨퍼런스 룸)
대상: 영아~성인 등록 교인 중 세례 및 입교 받지 않은 분
신청: 3월 3일(주일)까지 목회실 또는 심데이빗 장로
4. 2월 소그룹 리더 교육
일시: 2월 18일(주일) 12:40 pm
장소: 교육관 3층 예배실
강사: 담임목사
대상: 모든 소그룹리더(교구장, 속장, 부속장, QT리더, 믿음의 친구들) 및 위원장, 임원
5. Special Tuesday Zoom Devotional During Lent Season
- February 20 to 26
사순절 특별 줌 미팅 (2월 20일~26일)
6. FUMC Youth Discipleship Gatherings - Saturdays,
starting in March
중고등부 제자훈련이 3월부터 토요일에 열립니다.
7. 2024 봄학기 한글학교 등록 안내
일정: 3월 2일(토) ~ 6월 8일(토) 15주 과정
(3월 30일, 5월 25일 휴강)
수업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수업대상: Pre-K ~ 5th Grade
등록방법: Google Form 제출 또는 신청서 사무실로 제출
문의: fumcks8599@gmail.com, 목회실 또는 최기향 사모
8. 부서사역 섬김이 모집
대상: 예배부 (본당 청소 정리 및 예배 준비), 새가족 돌봄 팀, 중보 돌봄팀
문의: 목회실
9. 스포츠교실 봄학기 개강
탁구와 검도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탁구는 마감되었고 검도는 아직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탁구: (화) 10:30am~12:30pm (금) 6pm~8pm
검도: (화) 7pm~8pm (목) 7pm~8pm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SMALL CTR

청년예배 YOUNG ADULTS SERVICES

SUN 2:30 pm @소예배실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온라인
수요일 8pm 본당/온라인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미만) / 유아부(만3세미만)
유치부(만3-4세) / 유초등부(K-5) 11 am

청소년 YOUTH (ED BLDG)

중고등부(6-12) 11 am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live/>

새벽예배, 주일예배, 수요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설교방송 TV/RADIO

주일 9 am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9 am cbsn(www.cbsnewyork.net)
10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 87.7 (앵 FM877)
10 pm 단비TV (Spectrum Ch.1487)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12 pm(정오) 단비TV (Spectrum Ch.1487)

토요일 9 pm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1 pm/ 9 pm cbsn (www.cbsnewyork.net)

발행인: 김정호

편집: 뉴스레터팀

38-24 149th Street, Flushing, NY 11354

Tel. (718) 939-8599

Email: fumc@fumc.net